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19세기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5)

-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2021년) 내용 소개와 보완 -

필자는 2021년에 집필한 「19세기 서울지역 천주교회 목판인쇄소 운영과 서적 유통」,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공저, 서울역사편찬원, 2021년 3월)을 새롭게 수정·보완해서 『상교우서』 독자와 교회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호부터 위의 글 중 3~4절 부분과 새로 보완할 내용을 정리해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1) 서울 인쇄소의 개수와 위치’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위의 글 ‘3-2절 (2) 목판인쇄에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조선대목구의 서울 목판인쇄소 (탁희성 화백)

서울 목판인쇄소의 운영과 천주교서적의 유통

(2) 목판인쇄에 참여한 사람들

* 2021년 글(242~245쪽)에서 각주와 일부 인용문을 제외했고, 한자와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밑줄로 표시)

1858년 4월에 작성된 베르뇌 주교의 라틴어 사목지침(「사천 시노드와 조선 지역 시노드를 공포하며」)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천주교서적의 저술과 간행은 철저하게 대목구장의 허가와 감독 아래 진행되었다. 더 나아가 베르뇌 주교는 목판인쇄소의 건립과 운영까지 관장함으로써 애초부터 번역자[저술자]와 서적을 선택하고 그 내용을 감수·인준하여 간행 여부를 확정하는 다음 간행 부수, 배포 지역과 배포 수량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실무 차원에서는 대목구장에게 위임받은 사제와 신자들이 서적의 저술과 교정, 서사(書寫, 최종본 옮겨 쓰기)와 판각·인쇄를 나누어 맡았다.

아콘의 주교[다블뤼 주교]님은 그분의 관할구역을 사목하시라 세 곳의 인쇄소의 일을 맡아 하시라 경황이 없으십니다.

[볼리의 신부가 1865년 9월 24일에 루세유 신부에게 보낸 서한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 2019, 『볼리외 신부 자료집』, 천주교수원교구 하우현성당, 319쪽.]

이 책들 첫머리에는 주교나 선교사제인 저자의 이름이 숨김없이 분명히 밝혀져 있고, 교황대리 [대목구장] 주교님의 인가가 있습니다.

[볼리의 신부가 1865년 9월 22일에 포르 신부에게 보낸 서한 ; 『볼리외 신부 자료집』, 306~307쪽.]

부대목구장이자 천주교서적의 저술자이기도 한 다블뤼 주교는 세 곳 인쇄소의 일을 맡았는데, 목판에 새기기 위한 최종본을 완성하는 일을 담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최종본이 완성되면 베르뇌 주교의 감수·인준을 거쳐 목판인쇄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서적의 표지 안쪽에 저자의 이름과 대목구장의 인가가 명시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목판본 서적을 보면 저자 이름과 대목구장 감준이 모두 명시된 책이 있고, 감준만 명시된 책도 있고, 아예 저자 이름과 감준이 없는 책도 있다. 대략적으로 볼 때 처음 간행된 책에는 저자명과 감준이 없다가 뒤에 간행된 책에는 삽입한 것 같다.

목판인쇄소의 실무는 대략적으로 최종본의 내용을 글씨로 써서 판각하고 먹물을 묻혀 종이에 찍어낸 다음 인쇄된 종이를 접고 실로 묶어 책자로 만드는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여러 종류의 책자를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인쇄소 주인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런데 목판인쇄 실무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포도청 심문과 의금부 추국, 후대 신자들의 증언에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석정동 인쇄소의 주인이었던 최형을 심문한 관리들은 집요하게 누구와 같이 일했느냐고 추궁했다. 최형은 처음 포도청의 심문에서는 자기 혼자 글씨를 쓰고 목판에 새겨 인쇄[刊出]했으며 그 책을 신자들에게 팔아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진술했다.([좌포도청등록] 1866년 1월 15일 2차 공초) 그러나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추국 담당관의 마지막 심문을 받자 “이가(李哥)와 함께 새겼는데, 이가는 작년에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진술했다.([추안금국안] 1866년 1월 20일 4차 추국) 다른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협력자[고용인]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장[베르뇌] 주교(가) 한 번 불러 분부하시되 “네(가) 판각을 하면 여러 사람이 책 얻어 보기도 좋고 글자가 오자(誤字)도 없겠다” 하시니, 주교(가) 물재(物財)를 주면서 시키니 분부대로 자기와 딸을

데리고 몇 해를 판각을 하였더니 이 소문이 널리 났는지라.

『병인치명사적』 7권 25~26쪽 ;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 『병인치명사적』 2, 천주교 수원교구, 111쪽]

경진년(1880) 간에 백(블랑) 주교가 (최우정) 바실리오를 부르시어 말하시되 “... 이 금액으로 성서를 판각코자 하나 ...; 바실리오는 예전에 장(베르뇌) 주교 때에 판각하는 데에 여력하였다고(힘썼다고) 하니, ... 거사하라.”

『최 바실리오 이력서』, 『순교자와 증거자들』,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36~237쪽.]

우리는 세 책 세 권을 펴냈습니다. 조판공 4명이 인쇄 원판을 만드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소들은 놀라우리만치 유용합니다.

[베르뇌 주교가 1864년 8월 11일에 리부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561쪽.]

1880년대 이후 취록된 신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최형이 자신의 딸이 함께 몇 년간 판각(板刻)을 했고 이 소문이 신자들 사이에 널리 났다. 다른 증언에 의하면, 최형의 사위인 이경중(가롤로)이 처가에서 함께 살았는데 최형이 체포된 이후 다른 곳으로 피신 갔다가 1868년 12월(음력)에 잡혀 포도청에서 죽임을 당했다.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현대문 편, 정리번호 144, 267~268쪽.] 딸과 함께 사위인 이경중이 인쇄소 일에 참여했는데, 최형이 이경중, 즉 ‘이가’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죽었다고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창동의 인쇄소를 담당하던 임치화는 1866년 교육(敎獄, 천주교 박해) 당시 붙잡히지 않았고 관련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최양업 신부의 아우인 최우정(바실리오)은 1880년대에 블랑 주교의 지시로 목판인쇄를 담당했는데 그가 담당자로 선별된 이유는 “베르뇌 주교 때에 판각하는 데 힘썼다”는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최우정이 1860년대 당시 세 곳의 인쇄소 중 어느 곳에서 일했는지는 모르지만, 판각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르뇌 주교의 1864년 8월 11일 서한에 의하면 당시 4명의 조판공이 목판인쇄 원판을 만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이고 인쇄소 주인인 최형이나 임치화와는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인쇄소 주인을 통해 고용한 조판공 신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서울 목판인쇄소의 건립과 운영에는 대목구장을 비롯한 선교사제 외에 조선인 신자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인쇄소 주인(운영자)으로 최형, 임치화, 전장운이, 실무 담당자로 최형의 딸, 이씨[최형의 사위 이경중일 가능성 있음], 최우정이 확인된다. 이들 신자 중 서울 목판인쇄소 건립 이전에 인쇄업에 종사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지만, 최형과 전장운, 최우정은 교회 신자들을 상대로 ‘상업’ 행위를 했던 경험이 있었다.

최(형) 베드로는 서울(에)서 책방[목판인쇄소] 일 할 때에 많이 서로 만나 보았고 ... 본래 시골 사람인데, 생애(생계유지)는 문짜는 목수(木手) 일을 하였으며 나중에 서울 와서 남대문 밖에 살다가 성교책 박는(인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병인 순교자 시복재판록』(2차) 6권 59쪽, 65쪽, 45회차(1922.12.10.) 김흥민 요한 증언]

전(장운) 요한 사도는 서울 사람이요, 태중교우로 가세 빈한하여 피색 장인으로 생명하며, ... 성교서 각 판(刻板)을 임(치화) 요셉에게 사가지고, 판각일을 시작하려다가 (천주교 박해가 일어나자) 각판을 지키고 있으니 (포졸이 와서 잡혀갔다.)

[『박순집 증언록』 1권, 15앞~15뒤; 김영주 번역, 『박순집 증언록(Ⅰ Ⅱ Ⅲ)』, 성황석두루가서원, 2001, 57쪽.]

(최우정) 바실리오는 손재주가 있었으므로 목주 굵기와 상본 꾸미기로 소일 삼아 지내시며 ... 수삼 년을 지내시더니 이때 병인년을 당하였다.

[『최 바실리오 이력서』, 앞의 책, 223쪽.]

최형은 30대 후반에야 늦게 결혼한 다음 서울 남대문 밖에 살면서 교회서적을 필사하고 목주를 만들어 팔며 자그마한 장사도 하였다. 그는 오래전부터 인쇄소를 가지기를 바랐는데, 베르뇌 주교의 지시에 따라 인쇄소 일을 맡게 되었다.[칼레 신부가 작성한 ‘병인박해로 희생된 조선인 순교자들’(A-MEP Vol.579, f.1225-1~2); 한국천주교주교회의문화위원회, 『A-MEP Vol. 579(B) Corée 1797-1874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2009, 213~216쪽] 이처럼 최형은 교회서적 필사를 생계로 삼고 있었지만, 인쇄소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절감하고 있었고 성물 판매와 다른 장사를 통해 유통과 판매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시골 출신인 최형이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문짜는 목수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시복재판 증인 김흥민은 최형이 서울에서 ‘책방’[목판인쇄소] 일을 할 때 많이 만나보았다고 증언했다. 목재와 연장을 다루는 데 익숙했던 그가 비교적 쉽게 목판인쇄 일을 배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베르뇌 주교가 그를 조선대목구 소유의 목판인쇄소 주인[운영자]으로 낙점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회서적을 필사했던 최형은 목판인쇄 최종본의 글씨를 직접 썼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장운은 임치화에게 목판인쇄소를 인수하기 전에 ‘피색장(皮色匠)’으로 생계를 유지했었다. 가죽을 다루는 직업 관계상 칼 같은 연장을 다루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만든 가죽 제품을 팔거나 노동 품을 팔아 살았을 것이다. 이러한 직업 경험이 목판 판각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목판인쇄소를 인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우정은 지방에 살다가 1866년 이전에 서울로 올라가 조그마한 기와집을 사서 지냈는데 많은 성물(聖物)을 판매했고, ‘손재주’가 있어 직접 목주와 상본(聖畫像)을 제작했다. 최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제작과 판매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목판인쇄소 일에 관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블랑 주교의 지시에 따라 인쇄소를 운영했던 것이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소식과 공지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2호, 3월 31일 간행 예정

▣ 수원교회사연구소 편찬·간행 사업 소개

- 현재 수원교회사연구소에서는 『안성본당 자료집』(전 2책)과 함께 ‘선교사제서한 대역총서 2’ 『모방 신부 서한』과 ‘수원교구 역사총서 - 순교자 증언록 Ⅲ’을 편찬·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역총서와 역사총서는 원문을 새로 판독·편집하고 번역과 주석을 더하여 순차적으로 간행할 예정입니다.